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20. 3. 17.(화) 총 3매(본문 3)	
담당부서	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개발과	담 당 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서기관 박효철, 사무관 송혜연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, 3813
보 도 일 시	2020년 3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7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…모빌리티 혁신 가속화

국토부-업계,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
택시도 당당한 혁신주체,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

□ **모빌리티 혁신**을 위한 **정부**와 **업계**의 **움직임**이 빨라졌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**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**를 **속도감** 있게 진행하고, **조속한 서비스 출시**와 더불어 이를 위한 **대책**도 **신속히**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.

○ 이날 간담회에는 **택시기반 사업자**는 물론, **렌터카 기반 사업자,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**까지 다양한 **13개 모빌리티 업체***가 참석했다.

* KST(마카롱), 큐브카(파파), 벅시, 카카오모빌리티, 코나투스, 차차, 위모빌리티, 티원모빌리티, 우버코리아, SKT, 풀러스, 스타릭스, 코액터스 등

□ 김현미 장관은 "**1962년**에 모태가 만들어진 **여객자동차법**이 **낡은 틀**을 벗고 **혁신**의 **제도적 기반**으로 **거듭**난 만큼,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**빨리 체감**할 수 있도록 **속도**를 내달라"고 주문했고,

○ KST모빌리티, 벅시, 파파,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**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**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

향후 출시될 **서비스**에 대한 **기대감**을 높였다.

□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**본격 행보**의 **배경**에는 지난 3월 6일 통과된 **여객자동차법**이 있다.

○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**플랫폼 사업자**에게는 **단순 중개** 뿐 아니라 **직접 운송사업**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, **법적 불확실성**으로 인해 **사업 추진에 어려움**을 겪었던 **모빌리티 업계**는 **새롭고 안정적인 기반** 속에서 더욱 **과감한 시도**를 할 수 있게 됐다.

○ 향후 **카카오·마카롱** 등 **가맹택시**, **반반택시**, **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** 등 **다양한 사업모델**에 이어, 더욱 **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**들이 등장하는 **기폭제**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 자리에서 **김현미 장관**은 ①**'규제 샌드박스'***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**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
*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'반반택시'(코나투스)와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'셔클'(현대자동차-KST)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영업 중

- ②**초기 스타트업**에 대해서는 **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**도 **감면**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③**플랫폼 가맹사업**은 면허 기준 대수를 **서울 기준** 종전 **4천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**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,

- ④**기사 자격**을 **1~2일 내**에 받을 수 있도록 **시행규칙을 개정**하여 **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**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 **택시**에 대해서도 **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**이 될 수

있도록 **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**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
○ 정부는 그간 **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**을 해소하고, **개인택시 고령화**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

- **전액관리제, 월급제**를 시행하고, **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**하여 **청장년층의 유입**을 유도하는 등 **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,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**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.

□ **김현미 장관**은 "**모빌리티 혁신**은 모든 국민이 **원하는 시간에, 원하는 방식으로,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**하고, **함께**하는 모든 이들이 **성과를 누리는 것**인 만큼"으로, "**혁신**도 **상생**할 수 있다는 **한국형 혁신모델**이 **정착**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"고 당부하고,

○ 특히 "코로나19 문제로 '**안전 이동**'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**초연결시대**에 **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**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"고 제안했다.

□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, **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**이 **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**인 **서비스**를 창출할 수 있도록 **제도적으로 뒷받침**하고,

○ **기존 택시**와 **새로운 플랫폼 사업** 모두 **국민**의 **신뢰** 속에서 **성장**할 수 있도록 **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**해 나갈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택시산업팀 송혜연 사무관(☎044-201-3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